"제주4·3 정명·유네스코 등재 힘 모아야"

(正名)

도의회 어제 4·3특별위원회 역대 위원장 좌담회
한권 위원장 "4·3 정명 정의로운 해결 최대 과제"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4·3의 '정명'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만간 이와 관련한 도민인식조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는 2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4·3특별위원회 역대 위원장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도의회 4·3특별위원회 출범 30주년을 맞아 기념주간 행사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좌담회에는 부봉하 전 위원장(제6·7대 후반기), 김수남 전 위원장(8대 후반기), 손유원 전 위원장(제10대 후반기), 정민구 전 위원장(제11대 전반기), 강철남 전 위원장(제11대 후반기), 한권 위원장(제12대 전반기)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권 위원장은 "제주4·3의 정명과 관련한 문제가 최대 과제가 됐다"면서 "4·3의 제대로된 이름을 찾는 것이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남은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권 위원장은 "제12대 4·3특별위원회에서는 정명과 관련된 인식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상반기 내에 실시하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인식조사를 통해 4·3특별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나갈 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역대 위원장들도 4·3의 정명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4·3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 따른 도의회 4·3특별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부봉하 전 위원장은 "진실은 하나인데, 지금 몇가지로 왜곡돼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진실을 반드시 찾아내 역사속에 묻고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수남 전 위원장은 "4·3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정과 의정이 함께해야 한다"면서 "입에만 담지말고 전 도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동참할 수 있는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유원 전 위원장은 "제주도의회 4·3특위 업적이라면 특별법 제정에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지금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정명을 제대로 붙이지 못하는 문제 등이 남아 있다. 진상을 파헤쳐 명예를 회복하는 과제를 해나가고 향후에는 화해와 상생의 중요성에 대한 역사교육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구 전 위원장은 "역대로 도의회 4·3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보면 과거에는 제주4·3을 양지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냈다면 현재는 특별법 제정을 이뤄냈지만, 이제 세계화와 전국화, 정명의 문제가 남아있다. 4·3이 전환에 시기에 있는 만큼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2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4·3특별위원회 출범 30주년을 맞아 기념주간 행사 일환으로 역대 위원장 좌담회가 열렸다. 강희만기자

도, 민간체육시설 할인사업 '호응'

월 2만원 한도내 이용료 10% 할인 지원
이용건수 가맹점 매출액 등 꾸준히 늘어

제주도가 시행하는 민간체육시설 할인사업의 이용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민간체육시설 할인사업의 가맹점 매출 역시 증가하는 등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2017년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민간체육시설 10% 할인사업을 도입해 민간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해 월 2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료의 10%를 할인 지원하고 있다.

22일 기준 도내 가맹점은 이용대상 민간체육시설 859개 사업장 중 521개소(60.6%)다.

지난 3년간 도민 이용 건수 및 가맹점 매출 상황을 분석한 결과 이용건수는 2020년 3만4000여건, 2021년 6만3000여건, 지난해 8만여건 등으로 2년새 135%가량 늘었다.

더불어 가맹점 매출액은 2020년 41억6400만원, 2021년 55억8000만원, 지난해 75억7900만원 등으로 가맹점 사업장의 경영난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지원 절차는 제주도체육회에 할인 이용을 신청한 후 체육시설 이용액을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즉시 10%를 할인하며, 도체육회에서 할인된 금액을 카드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가맹점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제주도 체육회(064-717-7145)로 문의하면 된다. 이태윤기자

제주 신규해녀 양성시책 발굴 나섰다

도, 해녀와 불턱대화 간담회 갖고 의견 수렴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녀 인구 고령화와 직업 해녀 수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새내기 해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신규해녀 양성시책 발굴에 나섰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해녀 신규시책 발굴 및 제도개선을 위해 해녀 경력이 10년 미만인 40세 이하 새내기 해녀와 불턱대화 간담회를 갖고 현장 애로사항 및 어촌계 가입에 따른 어려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 해녀학교 운영 개선, 신규해녀 양성시책 보완, 어촌계 가입에 따른 행정지원 등 10여 건을 접수했으며,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 부합되도록 신규해녀에 대한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해 육아기간 중 조업일수 불충족으로 어업인 자격이 상실되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제주시 한림읍과 서귀포시 법환동 등 서부지역에 편중된 해녀학교를 동부지역으로 확대하고, 해녀학교 교육프로그램 개선과 해녀 인턴제를 교육과정에 편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도는 건의사항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고대로기자

'귀농귀촌 동네작가' 모집

서귀포시는 도시민유치지원센터를 통한 도시민 유치 촉진을 위해 '서귀포시 귀농귀촌 동네작가'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동네작가는 현장답사·취재를 통해 농촌의 가치를 발굴해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활동을 담당한다. 지원 대상은 서귀포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며, 신청서는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서귀포시도시민유치지원센터 방문 또는 E-mail(hys1663@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백금탁기자

제주도 AI 활용 스마트학습 대상 선정

12월까지 소규모 초등학교 7개교·127명 지원

제주도는 도내 읍면지역 소규모(도서·분교) 초등학교 대상 '2023년 인공지능(AI) 활용 스마트학습 지원사업'을 공모해 7개교·127명의 학생을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공지능(AI) 활용 스마트학습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학생별 학습 진도와 수준·학습패턴을 분석하고, 개인별 학습 진단 및 처방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제주도는 최종 선정된 7개교에 오는 12월까지 인공지능 활용 1대1 맞춤형 스마트학습을 위한 스마트 학습기기 및 온라인 수강권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올해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교별 자율성을 부여해 맞춤형 프로그램(교과학습, 독서논술, 진로 등)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래 학습문화 형성을 위해 가급적 전 학생을 참여시켜 방과후 수업 등과 연계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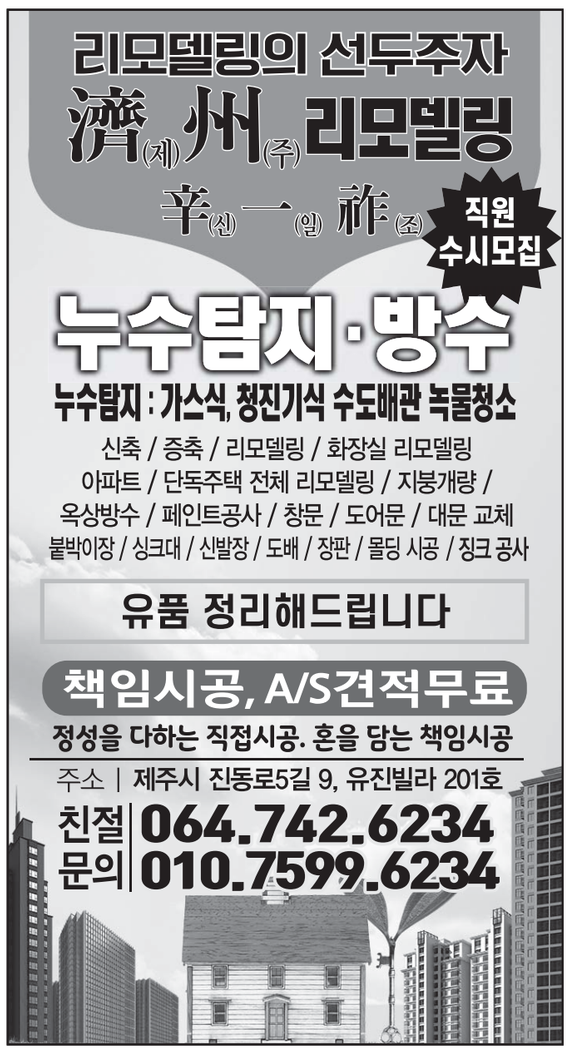
이는 지난해 사업평가에서 제시된 전 학년 또는 전교생 참여 시 또래 문화형성으로 긍정효과 발생, 스마트학습과 학교 교과수업 및 방과후 수업 연계 시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지난해 만족도 조사 결과 주변에 학원이 없는 환경에서 학교 진도에 맞춰 공부할 수 있고, 학교 수업에 대한 반복·심화 학습으로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등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 중 93%가 교육 격차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됐고, 학생의 수준과 학습 진도에 따른 맞춤형 학습이 가능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태윤기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위한 문화교실 운영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문화교실이 마련된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3월부터 월 1회 운영한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1시간 동안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일 1일 전까지 동물보호센터(710-4067)로 신청하면 동물을 사랑하는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이태윤기자